

# 조선시기 고려 法宮에 대한 지식의 변천\*

장 지 연\*\*

- 
- |                                      |                             |
|--------------------------------------|-----------------------------|
| 1. 머리말                               | 4. 19세기 '연경궁 정궁설'의 부정과 그 배경 |
| 2. 고려 법궁 관련 명칭                       |                             |
| 3. 조선 전기 '延慶宮', '滿月臺' 명칭의 유행과 활용도 변화 | 5. 맺음말                      |
- 

초록: 이 논문은 조선 시기에 고려 법궁의 명칭에 대한 고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의 고려에 대한 지식 변천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려 법궁은 15세기 초 연경궁으로 기록되었다가 15세기 후반 정전(건덕전) 앞 계단을 만월대라고 부른다는 서술이 추가되었는데 16세기 이후에는 오히려 만월대라는 명칭이 대중적으로 법궁터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초반에 크게 변화하는데, 연경궁은 법궁의 명칭이 아닌, 이궁의 명칭으로 고증되고 정전 역시 건덕전이 아니라 회경전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깊었다.

조선 초에는 고려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살아있는 기억'으로서 구성되었던 개성은 조선의 창업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만 관심이 기울여졌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이후 고려에 대한 '학습된 기억'이 대두하여 그 유적지로서 개성이 주목받으면서 역사의 감계이자 형승지로서 사대부들의 개성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여행을 통해 수집한 지역 정보들은 다시 『동국여지승람』 같은 관찬 지리지를 편찬하는 데에 반영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유행하였고 후대의 지리지나 읍지에까지 가장 권위있는 정보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고증학적 분위기에서 개성의 고적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도경』 같은 당대 사료가 더 비중있게 취급되며 새로이 고증된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려에 대한 지식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 초에

---

\* 이 논문은 2010년도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일단 성립된 후에도 변화를 거쳐왔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15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이라는 중요한 결절점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본궐, 연경궁, 만월대, 기억의 재구성

## 1. 머리말

고려 궁궐들의 이름을 전하는 사료는 많지만, 사료에 드러나는 고려 궁궐의 명칭과 체계는 무척 혼란스럽다. 특히 송악산 아래 소위 만월대터에 자리잡은 법궁의 경우에도 그 명칭을 분명히 알 수 없으며, 이미 조선시대부터 고려 법궁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조선 시기부터 고려 법궁의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滿月臺’라고 보는 설과 ‘延慶宮’이라고 보는 설 두 가지가 있으며, 법궁의 정전에 대해서도 ‘乾德殿’이라고 보는 설과 ‘會慶殿’이라고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만월대’나 ‘연경궁’ 모두 법궁의 이름이 아니며, ‘本闕’ 혹은 ‘本大闕’이었다고 볼 수 있고, ‘건덕전’과 ‘회경전’은 서로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정전이었다고 보고 있다.<sup>1)</sup>

고려 법궁<sup>2)</sup>의 명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당대 사료가 영성하고 혼

1) 장지연, 2006 『고려 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역사와현실』 60.

2) 이 논문에서 ‘법궁’이라는 용어는 왕이 임어하는 제1왕궁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법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홍순민으로서, 조선 초부터 궁궐의 격식에 따라 법궁과 이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1-2면). 이러한 법궁이라는 용어를 조선 시기가 아닌 고려 시기의 궁궐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이 있었다.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서는 제1왕궁을 지칭할 만한 용어로 법궁, 정궁, 정궐 등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의례의 기준 장소라는 점에서 본궐의 위상은 확고하였기 때문에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제1왕궁과 기타 왕궁은 확실히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위상을 가진 본궐에 대하여 개념으로서 ‘법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단 조선 태조대에도 이미 ‘법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려 시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법궁이라는 용어는 제1왕궁을 지칭하기 위한 개념어이며, 이미 학계에서 자리잡은 용어이기 때문에 고려 시기 궁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궁’과 ‘궐’의 위상 차이가 있다고 보고 굳이 쓴다면 고려의 본궐에 대해서는 ‘정궐’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의견도 있다(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란스러우며, 우왕대 이후부터는 거의 폐허인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 실록 등의 기록에는 법궁 터 정도만 거론되었고, 이후 편찬된 지리지나 읍지 등에서는 조선 ‘개성부’의 古跡 정도로만 다루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증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선 시기의 고려 법궁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동일한 시기에 여러 가지 설이 대립을 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고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 초에는 법궁의 이름은 연경궁, 정전은 건덕전으로 언급되다가 이후 만월대라는 명칭이 공식적이면서도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 19세기에 이것이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차이가 그다지 주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려 관련 지식 자체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기를 거치오면서 변화했고 변화했을 수도 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식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에 대한 연구는 고려 시기 유적에 대한 조선 시기 사료에 접근할 때 좀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한편, 조선 시기의 고려 관련 지식이나 인식이 어떻게 형성, 변화해왔는가 라는 점을 살필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고려 본궤에 대한 고증이 조선 시기 어떻게 변천해왔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고려 관련 기본 사료를 기반으로 조선 시기 개성 관련 地誌에 나타난 고증 내용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시기 고려 관련 지식이 변화하는 시기들을 짚어내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 2. 고려 법궁 관련 명칭

고려 법궁은 현재 만월대터로 알려진 송악산 아래 구릉지에 입지한 궁궐터를 지칭한다. 고려 당대 기록인 『고려도경』에 따르면, 법궁을 王府로 소개하고 會慶殿을 正寢으로, 그 뒤쪽으로 장화전과 원덕전이 있었다고 하고, 회경전의 서북쪽에 乾德殿이 있으며, 그 부근에 장령전, 장경전 등이 위치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

신서원). 그러나 본문에서 서술하겠지만 고려 시기 궁궐에 이러한 일원적 위상 차이를 엄밀하게 적용하는 것은 힘들고, 용어 자체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sup>3)</sup>

그에 비해 『高麗史』에서는 해당 전각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궁명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궁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등장하는 명칭으로는 ‘大內’,<sup>4)</sup> ‘大闕’,<sup>5)</sup> ‘禁中’,<sup>6)</sup> ‘本闕’<sup>7)</sup> 등의 명칭을 들 수 있는데, 이중 ‘본궐’은 고종대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에는 매우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다. 『고려사』 세가만 놓고 보았을 때, 本闕은 총 56회, 禁中은 10회, 大內 13번, 大闕 2번 등으로 본궐이 압도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이다. 고종대 이후 본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려 후기에는 주로 본궐로 불렸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근래 연구에서는 ‘본궐’, ‘금중’, ‘대내’, ‘대궐’ 등의 명칭은 보통명사와 다름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천자국을 자처한 고려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sup>8)</sup> 필자도 예전 논문에서 천자국을 지향한 고려의 성격과 법궁의 명칭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에는 입장이 다르다. 『고려사』나 기타 기록을 보면, ‘宮’과 ‘殿’이라는 명칭 역시 혼용되는 등,<sup>9)</sup> 고려 법궁의 궁궐 관련 명칭들은 ‘궁’이나 ‘궐’, ‘전’ 등의 칭호에 조선 후기와 같은 일원적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고려 당대 사료에서는 ‘본궐’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시기에는 ‘延慶宮’과 ‘滿月臺’ 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본대궐’이라는 명칭은 개성

3) 『宣和奉使高麗圖經』 권5 宮殿 1; 권6 宮殿 2.

4) 『高麗史』 권2, 世家2 光宗 14년 6월.

還御宮詔曰 朕比爲重修大內 久在離宮 心存警備 事異尋常 百官奏事 多不親聽 慮恐衆心 或生疑阻 其爲軫念 寢食難忘 今者修營功畢 聽政有所 凡爾百僚 各敬爾事 依舊進奏 毋得稽留 庶幾魚水同歡 毋致君臣相阻

5) 『高麗史』 권55, 志9 五行3 土 毅宗 18년 11월.

戊子大霧 癸卯 陰霧四塞 行者失路 太史奏云 霧者 衆邪之氣 連日不解 其國昏亂 又霧起昏亂 十步外不見人 是謂晝昏 大闕明堂者 祖宗布政之所 其制皆法天地陰陽 故王者出入起居 不可無常 今陛下處非其位 任非其人 明堂久曠而不居 天災可懼而不省 移徙無常 號令不時 故有此異 王竟不悟

6) 『高麗史』 권15, 世家15 仁宗1 仁宗 4년 윤11월丙辰.

飯僧於禁中

7)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1 高宗 4년 8월 庚午.

還御本闕

8)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9)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1 忠宣王 5년 3월 癸巳.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지역 명칭으로 언급되었다. 연경궁은 『세종실록』 지리지 이래 고려의 법궁이라고 서술되었으나, 결론을 먼저 제시하자면 『고려사』의 기록들을 검토해볼 때 연경궁은 이궁으로 보는 것이 맞다.

延慶宮은 현종비였던 元成太后的 궁으로 시작되었다. 인종대 초반 이자겸 난의 진행과정을 보면 법궁이 불에 타자 연경궁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연경궁은 이궁으로서 고려 법궁 부근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明宗代 기사처럼 약간 논란이 될만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충선왕대 이후 본궐과 구분하여 기능을 나누어 맡은 대표적인 이궁으로 사용되었다. 충선왕대의 본궐과 연경궁 중수는 특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그 이전 시기까지 본궐 이외 기타 이궁들의 기능과 운용이 특별한 원칙없이 행해진 것에 비해, 충선왕대 양 궁이 중수되면서 기본 정치의례를 행하는 본궐과 연회가 주로 행해진 연경궁으로 크게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민왕대까지 대체로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는 연경궁이 주요 이궁으로서 확실하게 자리잡고 기능한 때였다.<sup>11)</sup>

한편 望月臺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에는 보이지 않는 표현인데 조선 시기에는 ‘망월대’라는 이름에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南孝溫(1454~1492)은 1485년(성종 16)에 개성을 방문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옛 궁터를 속칭 望月臺라 부른다고 기록하였다.

東池와 左藏의 터를 지나 古宮 터에 올랐는데, 속칭 望月臺라 한다. 臺 아래에 毬庭이 있으며, 庭의 가운데로 맑은 개울이 있는데 원래 廣明寺로부터 흘러온다. 臺 위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은 몇 아름이나 되어 하늘에 닿을 듯하다.<sup>12)</sup>

조선 시기에는 ‘만월대’라는 이름이 ‘망월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설이 다수였다. 林孝憲은 『松京廣攷』에서는

望月이라는 두 글자는 처음에 『高麗史』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本朝 南孝溫이 지은 遊錄(宋京錄: 필자주. 이하 괄호 안은 필자 주)에서는, ‘東池와 左藏의 터를 지나 古

10) 연경궁이 이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장지연, 2000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 연구』 15, 72면; 김창현, 앞의 책, 182-191면 참조.

11) 본궐과 연경궁의 기능 분담에 대해서는 장지연, 2006 앞의 논문 참조.

12) 『秋江先生文集』 권6, 雜著 松京錄

經東池左藏之墟 登古宮墟 俗呼爲望月臺 臺下有毬庭 庭中有清川 元自廣明寺而來 臺上有松樹 或至數圍者參天矣

宮의 터에 오르니, 속칭 望月臺라 한다'고 하였으니, 滿月이라는 호칭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蔡壽와 俞好仁의 遊記(遊松都記)에서 하나(채수의 글)<sup>13)</sup>는 '俗號(만월대)'라고 하고 다른 하나(유호인의 글)는 '諺稱(만월대)'라고 하니, 野人들이 서로 전하다가 望이 변해서 滿이 된 듯하다.<sup>14)</sup>

라고 하고 있어, 망월대에서 발음이 비슷한 만월대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中京誌』에서도 같은 입장에서 “망월대의 망과 만이 발음이 비슷해서 만월대로 쓰인 것 아닌가 싶다”<sup>15)</sup>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체로 조선 시기에는 ‘망월대’라는 명칭에서 ‘만월대’가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망월대’는 사서에서는 1285년(충렬왕 11)에 왕이 꿈에서 선조들이 망월대에서 노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고려사절요』 기록에 딱 한번 등장한다.<sup>16)</sup> 선조들을 거론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망월대는 고려 정궁 주변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본궐을 의미한다고 확정짓기는 힘들다.

북한 학자 전룡철은 만월대라는 이름이 원래 궁성 안에 음력 정월 보름달을 바라보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망월대’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전한다고 하였는데, 전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아서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sup>17)</sup>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름을 볼 때 달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점, 李奎報의 『泰齋記』에서 ‘망월대’라는 이름을 ‘우뚝 솟은 곳’에 붙였다는 점 등을 볼 때 높고 탁 트인 지세를 의미한다고

13) 인용문의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한 것이다.

14) 『松京廣攷』 宮殿.

滿月二字 則初不見麗史 且本朝南孝溫遊錄云 經東池左藏之墟 登古宮墟 俗號爲望月臺 則其稱滿月 未知何所據 而但蔡壽俞好仁遊記一云俗號 一云諺稱 疑或野人相傳望變爲滿歟

15) 『中京志』 권4, 宮殿附樓院.

『중경지』는 여러 차례 중간되어 여러 종의 판본이 있는데, 1914년에 조선광문회에서 신식활자로 간행된 본이 널리 유통되었다. 『중경지』는 판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인용 부분은 판본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중경지』의 여러 판본에 대해서는 규장각 해제 참조.

16) 『高麗史節要』 권20, 충렬왕 11년 8월.

17) 전룡철, 2002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78면.

한편 심사위원이 현재 만월대 서쪽에 위치한 침성대 유적에서 ‘망월대’라는 명칭이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주었다. 어원을 볼 때 이 역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침성대 유적의 구체적인 설치목적과 기능이 우선 해명될 필요가 있고 이 유적이 충렬왕대 망월대로 불린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거리상 회경전터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경전터의 이름이 망월대가 된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망월대로부터 만월대로 이름이 바뀐 것인지 역시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좀더 여러 지점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다.<sup>18)</sup>

망월대와 관련성은 잘 알 수 없지만, 만월대라는 명칭은 그 나름으로 사용되었다. 공식적인 사서에는 그다지 등장한 바 없으나 문인들의 시나 시조에서는 적어도 고려 말부터 만월대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된 것이다. 먼저 고려 말의 문인인 元天錫(1330-?)의 시조에서 ‘만월대’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靑丘永言』에 실려 있는 그의 시조에서는

興亡(흥망)이 有數(유수)하니  
 滿月臺(만월대)도 秋草 (추초) | 로다.  
 五百年(오백 년) 王業(왕업)이 牧笛(목적)에 부쳐시니,  
 夕陽(석양)에 지나는 客(객)이 눈물계워 하노라

라고 하여 고려 법궁 터를 만월대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1382년 7월 南乙珍<sup>19)</sup>이 鄭夢周, 李種學, 閔安富 등과 滿月臺에서 지은 詩 聯句가 전해지고 있어서<sup>20)</sup> 1380년대 무렵부터는 ‘만월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sup>21)</sup> 우왕대부터는 본궐이 폐허가 되어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무렵에 만월대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다만 이 두 가지 사례가 모두 만월대라는 명칭이 일반화된 조선 후기에 와서 수록,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 말의 것으로

18) 『東國李相國全集』 권23, 記 泰齋記.

公指崇丘之亞然者曰 此予之望闕臺也 予歎曰 旨哉 公之名是臺也 今公以喉舌之任 朝夕密邇 龍顏 猶謂之未足居 必近於帝闕 又尙以爲未足 而乃成望闕之臺 此眞古所謂心罔不在王室者也 又指岌然高者曰望月臺也 翼然如飛者曰快心亭也

이 글은 知奏事 于公이 새로 지은 집에 ‘태재’라는 이름을 붙인 내력을 기록한 것으로서, 1201년(신종 4)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주사 우공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나 흔치 않은 성을 가진 인물이라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규보와 시대가 맞는 인물인 于承慶일 가능성이 크다. 윗 글을 보면 그가 지은 집은 고려 정궁 근처에 위치하며 높은 지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부터 ‘망월대’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었다. 승선 우공은 고려 정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망궐’의 대라고 자찬하였는데, ‘망궐대’, ‘망월대’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19) 남을진은 생몰년은 미상이지만, 고려 말 조선 초를 살아간 문신으로서 개국공신인 남재, 남은의 아버지인 남을번의 형제다.

20) 『沙川伯南先生遺集』 詩 五言.

歲壬戌秋七月既望夜 同諸公遊滿月臺 各次一句 以暢敍幽情

21) 남을진의 『사천백남선생유집』에 실린 만월대연구는 심사위원이 소개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00% 신빙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있다.

여하간 망월대, 만월대 등 명칭의 유래와 상호 관계는 분명치 않지만 두 가지 다 약간 높은 지대의 탁 트인 지대를 의미하는 곳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왕대 이후 본궐 터가 황폐화되면서, 현재 회경전터로 지칭되는 터 앞의 높은 계단, 혹은 계단 위 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만월대라는 명칭이 고려 말부터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성 주민 사이에 소통되는 명칭으로 국한되었다. 조선 초에 중앙에 알려지고 공식적으로 확산된 것은 또다른 계기가 필요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려 법궁 관련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고려 사회가 여러 차례의 전쟁과, 강도 천도기라는 단절기를 겪었다는 점, 원 간섭기 왕실의 권위나 체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고, 고려 말 흥건적의 침입과 같은 전란을 겪는 등 해당 장소에 단절을 가져오는 여러 사건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려 시기에 ‘궁’이나 ‘궐’, ‘전’ 등의 칭호에 일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특별한 위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체계가 매우 복잡하였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은 개경 궁궐 관련 역사적 사실들이 더욱 혼란스럽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이는 조선 초 고려 개경 관련 사실들이 정리될 때 본궐 관련 사실들이 혼동되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에 대한 고증에 있어서 조선 시기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조선 전기 ‘延慶宮’, ‘滿月臺’ 명칭의 유행과 활용도 변화

조선시기 가장 먼저 고려 법궁의 이름으로 거론된 것은 ‘연경궁’이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延慶宮舊基에 대해 설명하면서

송악 남쪽에 있는데, 지금 都人들이 本大闕이라 일컫는다.<sup>22)</sup>

라고 하였다. 15세기 초반 송악 남쪽의 고려 법궁을 연경궁이라고 인식하였고, 본

22)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舊都開城留後司.

延慶宮舊基 在松嶽南 至今都人稱爲本大闕



대궐은 지역민이 부르는 명칭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계승하여 『東國輿地勝覽』에서는

연경궁은 송악산 밑에 있으니, 術家들이 이곳을 明堂 자리라고 하였다. 正殿은 乾德宮이니, 혹 大觀이라고도 칭한다. 남문은 廣化門이요, 동문은 東華門이요. 서문은 西華門이요, 북문은 玄武門이다. 인종 때에 李資謙이 불태웠고, 공민왕 때에 또 紅巾賊의 난을 겪어서 다시 새로 세우지 못하였다. 지금은 本大闕이라 하고, 그 대궐 뜰은 毬庭이라 한다.<sup>23)</sup>

이 역시 법궁의 정식 명칭은 연경궁이고 본대궐은 지역민이 부르는 이름이며 정전은 건덕궁으로 본 것이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만월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연경궁이라는 명칭만 사용된 것에 비해, 『동국여지승람』에는 만월대 항목이 추가되었다. 이후 16세기 추가된 신증 부분에는 만월대를 읊은 시들이 수록되어 이 항목이 강화되었다. 이를 정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24)</sup>

〈표 1〉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서술 비교

출처	특징	내용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舊都開城留後司	延慶宮조만 존재	延慶宮舊基 在松嶽南 至今都人稱爲本大闕
『동국여지승람』 권5, 開城府下	延慶宮조와 滿月臺조 별도 기재	延慶宮 在松嶽山下 術家謂明堂之地 其正殿曰乾德宮 或稱大觀 南門曰廣化 東曰東華 西曰西華 北曰玄武 仁宗朝爲李資謙所焚 恭愍王時又經紅賊之亂 不復收建 今稱本大闕 其闕庭謂毬庭
		滿月臺 在延慶宮 卽正殿前階也
상동 [신증] 항목	延慶宮조에는 신증 내용이 없으나 滿月臺조에는 신증으로 시문 수록	[新增] 許琛詩 …… ○ 安琛詩 ……

23)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 開城府下.

延慶宮在松嶽山下 術家謂明堂之地 其正殿曰乾德宮 或稱大觀 南門曰廣化 東曰東華 西曰西華 北曰玄武 仁宗朝爲李資謙所焚 恭愍王時又經紅賊之亂 不復收建 今稱本大闕 其闕庭謂毬庭

24) 『東國輿地勝覽』은 1481년(성종 12)에 50권으로 완성되었다가 1530년(중종 25)에 증보, 간행되었다. 증중대 증보하면서 추가된 내용은 각 항목의 끝에 “신증”이라고 표시하고 기입하였다.

이로 볼 때 초기에는 ‘연경궁’이라는 명칭과 지역민이 부르는 속칭인 ‘본대궐’만이 관찬 지리지에 등재되었다가, 후대로 오면서 ‘만월대’라는 속칭도 관찬 사료에 반영되고 16세기부터는 만월대라는 명칭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명칭보다도 만월대라는 속칭이 수록되고 이것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는 몇 가지 연쇄적인 작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첫째 『고려사』 등의 반포로 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둘째 이를 통해 젊은 문신들이 고려의 사적지로서 개성을 방문하여 지역의 정보들을 입수한 것, 셋째 이들이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자. 『고려사』의 초간은 1454년(단종 2)이었지만 초간 직후 바로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sup>25)</sup> 『고려사』가 본격적으로 경연에서도 읽히고 각종 논의의 바탕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예종, 성종대부터였다.<sup>26)</sup> 성종대 李石亨 등은 眞德秀의 『大學衍義』를 가감한 『大學衍義輯略』이라는 책을 진상하였는데, 『대학연의』를 가감하면서 역사적 선례로서 고려사 500년의 유적을 첨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sup>27)</sup> 또한 1474년(성종 5) 처음으로 경연에서 읽은 사례가 등장한 이후로 『고려사』는 틈틈이 경연 석상에서 강독되었고<sup>28)</sup> 고려의 태조나 문종 등의 功過에 대하여 포폄이 이루어졌으며, 이 무렵부터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고려사』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sup>29)</sup> 이런 점들은 고려에 대한 역사 지식이 퍼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장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고려사』의 기록은 워낙 영성하기 때문에 궁궐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료가 아니며, ‘만월대’라는 명칭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고려사』가 반포되어 널리 읽혔다는 것만으로는 연경궁에서 만월대

25) 세조대, 예종대 梁誠之가 거듭 『고려사』의 반포를 건의한 것으로 보아, 초간 직후 바로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던 듯하다(『世祖實錄』 권3, 世祖 2년 2월 20일(己未); 『睿宗實錄』 권6, 睿宗 1년 6월 29일(辛巳)).

26) 예종 즉위년의 南怡의 옥사는 남이가 『고려사』를 읽으며 했다는 이야기가 고변의 주요 내용이었다(『睿宗實錄』 권1, 睿宗 즉위년 10월 24일(庚戌); 26일(壬子)).

27) 『成宗實錄』 권17, 成宗 3년 4월 16일(壬午).

箋文에서는 ‘麗史五百年之遺迹’이라고 하여 『고려사』에서 필요 내용을 발췌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고려사 관련 기본 지침 도서가 『고려사』였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28) 『成宗實錄』 권48, 成宗 5년 10월 26일(戊申).

29) 신은제, 2007 『『고려사』 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23호, 69-70면.

로 무게의 추가 옮겨온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고려사』의 반포는 고려에 대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개경이 ‘고려’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로서 주목받는 계기적 영향에 그친다.

또 한 가지 계기는 시기적으로 성종대 무렵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이다. 조선 초부터 세종대 무렵의 관료들은 대부분 고려인으로서 성장하고 늦어도 조선 초에 관료에 들어온 세대들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인물들에게 고려는 현재와 시간 거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과거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거였다. 세종 같은 경우도 아버지인 태종의 평가를 통해 고려 말의 인물들에 대한 포핍을 직접 듣는 등 이 시기의 고려는 아득한 역사 속의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종대부터 이러한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한다. 성종대는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을 건국한 세대로부터 적어도 3, 4세대 이상의 내려온 후속 세대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려에 대해 전해 듣는 내용도 한 세대 이상을 걸러 듣는 간접적인 것이었고, 그도 아니면 책을 통해 접한 것 같은 학습된 기억에 의존하게 된다.<sup>30)</sup> 이러한 세대 교체는 새로운 세대에게 현재와는 다른, 흥미로운 하나의 역사로 고려를 인식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무렵 개성을 여행하며 기록을 남긴 젊은 문신들이 나오는데, 成俔(1439~1504), 兪好仁(1445~1494), 蔡壽(1449~1515) 등이 대표적이다. 1476년(성종 7) 사가독서를 하던 유호인, 채수 등이 성현과 함께 개성을 방문하고 이에 대해 기록을 남긴 것이다.<sup>31)</sup> 이들이 개성을 방문한 이유는 바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여러 가지 사적지를 가지고 있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채수는 송도를 방문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松京은 前朝(고려)가 도읍한 곳이다. 산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이 東方에서 으

30) 김중직은 跋松都錄이라는 글에서 왕조가 바뀐 지 80여 년이 되어 그 유민으로 당시 어렸던 사람들은 이제 늙어 꼬부라졌고 당시 장성했던 사람들은 무덤의 나무가 한 아름이 되었으니 당시를 고증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어, 세대가 교체되어 고려의 역사를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佔畢齋文集』 권2, 跋松都錄 “逮于今八十餘年 其遺民少者老耄 壯者冢木已拱 又孰從而徵其往日之繁華邪”).

31) 유호인, 채수 등은 사가독서 문신으로 선발되어 여가가 있었고, 성현은 파주에 성묘하러 가는 길에 이들과 함께 했다. 유호인은 채수, 성현 등이 갈 때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이들이 다녀온 것에 자극을 받아 기행에 나섰다(『成宗實錄』 권68, 成宗 7년 6월 14일(乙酉); 『續東文選』 권21, 蔡壽 遊松都錄; 兪好仁 遊松都錄).

뜸이다. 5백 년 동안 변화했던 빼어난 자취가 비록 이미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남은 풍속은 아직도 보존된 것이 있을 것이어서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하였다.<sup>32)</sup>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채수는 개성이라는 지역을 고려를 알려줄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하여, 그 사적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자취를 찾아가 보고 싶어 하였다. 실제 이들의 행로는 박연폭포 등의 자연 명승지 외에도, 권근, 이곡 등이 글을 남긴 연복사, 김부식의 비문이 있는 영통사 등을 방문하고 조선 창업의 자취가 서려있는 화원, 목청전, 고려 역대의 전설과 이야기가 서려있는 광명사, 귀법사 등등 개성 내의 여러 가지 유적지를 상세하게 다녔으며 유적지마다 그 역사적 유래, 관련 시문 등을 상세하게 적었다.

이들은 유적지의 역사적 유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고려사』의 한 부분을 인용할 정도로 이를 숙지하고 있었다.<sup>33)</sup> 이를 통해 『고려사』 반포 이후 이를 잘 학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문신들이 해당 장소에 관련된 시문도 숙지하고 있는데, 이는 1478년 간행된 『동문선』 편찬 작업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의 문신으로서 어떠한 형태건간에 이들이 『동문선』 편찬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간행 이전에 개성을 방문한 것이지만 관련 지식들을 이미 축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고려사』 반포 이후 고려와 그 사적지로서 개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시문과 역사를 숙지하고 있었던 젊은 문신들은, 개성을 여행하며 지역민이 전해주는 다양한 설화나 명칭들을 접하는데, 그런 속에서 ‘만월대’라는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① 本關의 옛터에 이르니 터가 松岳의 南麓을 인하여 그 地勢가 매우 높다. 사람들의 말이, “처음 창건할 때에 地脈을 상하고 싶지 않아서 돌을 쌓아 올려 계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높이가 모두 수십 척이요, 주춧돌이 가로 세로로 수 리에 이어졌

32) 『續東文選』 권21, 蔡壽 遊松都錄.

松京 前朝所都也 山水奇麗 甲于東方 五百年繁華勝迹 雖已掃地 其遺風餘俗 猶有存者 嘗欲一往探討而不得

33) 유희인은 ‘고종 10년에 물이 3일 동안 흐리자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물밖으로 나왔다’는 기록을 인용했는데, 이는 『고려사』 오행지의 기록이었다(『續東文選』 권21, 兪好仁 遊松都錄 “史云 高宗十年 水濁三日 魚龍盡出 可怪也”; 『高麗史』 권53 志7 五行1 水 “高宗十年四月辛丑 東池水濁三日 魚鼈盡出 或有死者”).

다. 그 맨 위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乾德殿인데, 殿門과 계단이 엄연히 있었다. 그 아래는 威鳳樓요, 그 동쪽 기슭에 돌로 제방을 만든 것은 東池였는데, 지금은 논이 되었다. 그 남쪽의 평탄한 땅이 毬庭인데, 푸른 소나무 만여 그루가 울울창창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른바 山呼·賞春·玉燭 등의 정자는 모두 찾을 수 없었다.…… 經歷 林秀卿군이 술을 들고 찾아왔기에 乾德殿 옛 터에 올라 소나무숲 속에서 마셨는데, 민간에서 여기를 滿月臺라 부른다.<sup>34)</sup> - (채수)

② 乙丑일 이른 아침에 房教授를 끌고 延慶宮의 옛 터를 찾으니 바로 고려 태조 즉위한 2년에 창건한 것이다. …… 세상에 전하는 말에 따르면 ‘맨 처음에 술사의 說에 혹하여 地脈을 끊으려 하지 않은 까닭으로 산세를 따라하다 짓다 보니 벌집처럼 되었다’고 한다.…… 말에서 내려 雲梯를 잡고 올라가니 마치 봉새가 목을 움츠렸다가 날아가려고 모습을 한 곳이 乾德殿 터였다. 앞이 탁 트여서 바로 그 땅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滿月臺라 한다.<sup>35)</sup> - (유호인)

채수(①)와 유호인(②)의 윗글을 보면 채수는 범궁터를 ‘본궐’로 지칭하고 있는 반면에 유호인은 연경궁 터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전의 터를 건덕전 터로 본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사람들, 즉 개성민들이 바로 이곳을 ‘만월대’라고 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만월대’라는 지역민의 호칭이 중앙 출신의 관료에게 전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유호인, 채수 등은 당대의 대문신이었던 서거정 및 김종직과 밀접한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송도록, 특히 채수의 송도록은 많은 이들이 읽었다. 당시 일행이었던 曹偉는 ‘本闕古基’라는 시를 남겼고<sup>36)</sup> 송도록에 대한 발문을 김종직으로부터 받아 왔다.<sup>37)</sup> 또한 徐居正 역시 이들의 유송도록을 읽고 서문을 남겼다.<sup>38)</sup>

34) 『續東文選』 권21, 蔡壽 遊松都錄.

本闕古基 基因松岳南麓 厥勢甚高 人言 初創時不欲傷地脈 故累石爲階 高皆數十尺 礎砌縱橫數里 其最據岡上者曰乾德殿 殿門陞級儼然 其下曰威鳳樓 其東麓石爲隄者曰東池 今爲稻畦 其南平行之地曰毬庭 蒼松萬株 蒼蔚攬天 所謂山呼賞春玉燭等亭 皆不可尋 …… 經歷林君秀卿攜酒尋至 登乾德殿古址 飲於松間 俗號滿月臺

35) 『續東文選』 권21, 俞好仁 遊松都錄.

乙丑質明 拉房教授訪延慶宮舊址 麗祖二年所創也 …… 世傳 其始 惑術士之說 不欲斷地脈 故隨岡勢 爲蜂房萬落 …… 舍馬攀雲梯而上 若鳳頭縮而欲飛者 乾德殿基也 面勢敞豁 正值其地 諺稱滿月臺

36) 『梅溪集』 권3, 七言長篇 本闕古基 [出松都錄].

37) 『佔畢齋文集』 앞의 글.

38) 『四佳集』 권5, 序 遊松都錄序.

이는 당대의 문신들에게 이들의 송도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후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김종직, 채수, 성현<sup>39)</sup>, 유호인 등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은 물론이고,<sup>40)</sup> 이들이 개성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던 허침, 안침 등의 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신증조에 수록되었다. 『동국여지승람』 편찬에는 俗諺의 見聞을 반영하였다고 하고 있어서,<sup>41)</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성부의 지역적으로 전해오던 만월대라는 명칭이 중앙에 전달되고 이것이 관찬 지리지까지 수록된 것이다.

고려에 대한 학습, 개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은 국왕의 행차 경향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성종대 이전 조선의 국왕들은 여러 차례 개경에 행행했지만, 대부분 평산 온천이나 齊陵과 厚陵 등의 제사, 혹은 조선 태조 진전이 있었던 목청전 등의 제례 등만을 행하고 돌아왔다.<sup>42)</sup> 다시 말해서 이들은 고려의 사적지로서 개경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조선 왕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소들, 굳이 표현하자면 ‘현재적 의미’를 지닌 개성을 방문한 것이었다.

그런데 성종대 무렵부터는 국왕 행차 장소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1474년(성종 5) 개경 행행을 준비할 때 開城留守 李芮가 前朝의 옛 궁궐터를 방문할 것을 청하였다.<sup>43)</sup> 이전까지 고려 궁궐터를 방문하라는 청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이때 이르러 처음으로 청해진 것이었다.<sup>44)</sup> 3년 후인 1477년(성종 8)에 개성부에

39) 채수와 함께 여행했던 成侃은 ‘연경궁 옛 터’라는 제목으로 지은 시에서 고려 법궁에 있었던 전각인 康安殿과 威鳳樓를 언급하였다.(『續東文選』 권7, 七言律詩 延慶宮古基 “鶴嶺凌空紫翠浮 龍蟠虎踞擁神州 康安殿上松千夫 威鳳樓前土一丘 羅綺香消春獨在 笙歌聲盡水空流 不須問訊興亡事 落日風煙滿目愁”)

강안전은 편전의 하나로서 사용된 전각이며 위봉루는 구정에 있었던 누각인 신봉루를 의미한다.

40) 『佔畢齋文集』 권2, 跋 輿地勝覽跋.

41) 위의 글.

42) 조선 시기 국왕들의 개성 행차에 대해서는 김문식, 2010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참조.

43) 『成宗實錄』 권47, 成宗 5년 9월 29日(辛巳).

留守李芮啓 請留觀前朝宮闕遺址 傳曰 卿言是 然聞大臣之卒 不可留也.

이예는 『고려사』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며, 유호인은 이예가 새로 지은 천수사 부근의 정자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예의 건의 역시 『고려사』 학습과 개성의 유적에 대한 주목이 관련이 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44) 정종대에는 고려 궁궐 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성 재천도 여부를 염두에 둔 행행이었지, 유적지로서 궁궐터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



머무를 것을 계획하였을 때 성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려사』를 보면, 볼만한 곳이 하나가 아닌데 어찌 두루 다 볼 수 있겠는가? 볼만한 곳을 기록하여 계문하라.<sup>45)</sup>

이는 분명 『고려사』를 학습하며 형승지인 동시에 고적지로서 개성을 재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이처럼 이 무렵에는 전반적으로 고려에 대하여 학습된 역사적 기억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유적지이자 관광지로서 개경의 본궐터와 박연폭포 등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中宗이 최초였다.<sup>46)</sup> 이때의 행행에서 주목되는 점은 대간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국왕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朴淵瀑布에 행차하였다는 점이다.

상이 비망기로 전교하기를, “…… 이번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내가 제사 때문에 온 것이지 유람하러 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朴淵瀑布는 유명하다고 일컬어진 곳이고 또한 여기서 멀지도 않다. 일찍이 『東國輿地勝覽』을 보니 다음과 같은 古詩 두 구절이 있었다.

‘임금님 수레 이곳에 왔었다고 들었거니  
당시 임금님 수레 지나던 곳이네’

이로 본다면 고려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성종께서도 이곳을 행행하시려다가 마침 대신 成奉祖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행행하지 못하셨다.

이번에는 내일 先聖을 배알하고 인재를 뽑은 다음 放榜하고 나서 별달리 할 일이 없을 경우 모래는 박연 폭포에 행행하여 종실과 재상, 호종한 인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에는 景[敬]德宮에서 養老宴을 행하고 그런 뒤에는 人馬를 모두 쉬게 했다가 또 그 다음날에 환궁하는 것이 편할 듯하다. 그래서 그 가부를 하문한다.”<sup>47)</sup>

성종 5년에는 이예의 청에 따라 범궁터 방문을 계획했으나, 成鳳祖의 죽음으로 취소되었다(『成宗實錄』 권47, 成宗 5년 9월 29일(辛巳)).

45) 『成宗實錄』 권75, 成宗 8년 1월 22일(辛酉).

傳曰 開城府古都也 有形勝之地 於豐壤留一日 開成府加留一日 以觀松岳等處何如 承旨韓僑孫舜孝對曰 宜無不可 傳曰 以高麗史觀之 可觀處非一 然豈能徧觀 其可觀處錄啓

46) 연산군 역시 개성 행차를 계획한 적이 있었다. 연산군은 만월대를 구경하며 풍악까지 쓰러고 하였으나 며칠 안 되어 중종반정으로 폐위되면서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다(『燕山君日記』 권63, 燕山君 12년 8월 19일(丙寅); 20일(丁卯)).

47) 이하 인용문도 아래 사료 참조.

『中宗實錄』 권80, 中宗 30년 9월 15일(癸酉).

上以備忘記傳曰 …… 今到此處 千載一幸 予爲祭祀 非爲遊觀而來也 古稱朴淵有名之地 而亦



이러한 국왕의 주장에 대하여 대신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근사 등이書啓하기를, “멀리 계신 능을 추모하여 친히 제사를 드리는 일은 大事입니다. 더구나 옛 도읍지를 보고 느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박연폭포는 전대에 놀러다니며 관광하던 곳이니 ‘임금의 수레가 왔었다.’는 말은 본받을 것이 못 됩니다. 다만 상께서 유람을 즐기시지 않는 것은 천성이신데 어찌 편안히 놀기를 즐기시려는 생각이 있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향사 때문에 행행하셨다가 고적을 두루 찾으려 하시는 것이니 前轍을 거울삼아 경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도로와 교량을 미처 수리하지 못할 것이니 이 또한 어려울 듯합니다.

또 이곳은 전대 왕조가 흥하고 망한 터전이므로, 상께서 穆淸殿을 참배하셨으니 聖祖께서 창업하신 어려움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滿月臺를 보시게 된다면 전대의 잔약한 후손들이 편안히 놀기를 즐기다가 패망하게 된 사실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현지를 두루 관람하시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유적을 실제 답사하여 그 옛일을 궁구해야 될 것이니, 어찌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고 새로운 장래를 경계하는 것을 절실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약간 완곡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명분이 서는 제사와 옛 수도로서의 유적지는 감계의 효과가 있지만 박연폭포는 그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로나 교량 등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차하지 말라고 건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중은 다시금

내가 일찍이 『高麗史』를 보았더니 흥망의 자취가 소상하게 실려 있었다. 이제 이곳에 와서 고적을 모두 살핀다면 거울삼아 경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연폭포를 보려는 것은 유람하자는 것이 아니다. 도로는 대강 닦아서 말 한 필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고, 크게 닦느라 백성들의 힘을 헛되이 수고롭게 하지 말라.

---

不遠於此處 嘗觀東國輿地勝覽 古詩云 曾聞玉輦此經過 又云 當時玉輦經行地 由是觀之 不無古例 成宗欲幸此地 適聞大臣成奉祖之卒 未果行也 今則明日謁先聖取人 放榜之後 別無所爲 欲於明明日 幸朴淵 饋宗宰扈駕人員 翌日於景[敬]德宮 行養老宴 其後 則人馬皆休 又翌日還宮 似便 故問其可否

謹思等書啓曰 追慕遠陵 而親祀 大事也 況古都所見 無非觀感之事也 朴淵乃前代遊觀之地 詩所云 玉輦經行 不足法也 但自上不喜遊觀 出自天性 豈有逸豫之念 今且因祀事臨幸 欲歷古跡 非爲遊觀 亦可以鑑戒前轍 似甚無妨 然道路橋梁 必未及治 恐亦難也 且此乃前代興亡之基 自上拜穆淸殿 則宜思聖祖創業之艱大 見滿月臺 則亦思前代孱孫 以逸豫覆亡之事 凡所歷覽 必涉其迹 而究其故 豈不益切於披往牒 而戒青史者乎…… ”

答曰 予嘗覽高麗史 昭載興亡之迹 今到此地 窮覽古跡 可爲鑑戒 欲見朴淵者 非爲遊觀 道路則略修 單馬通行之路 勿令大治 虛勞民力

라고 하며 박연폭포 역시 고적의 하나로서 살피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이틀 뒤에 증중은 박연폭포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실제 가는 길이 험준해서 여러가지 무리를 일으켰다.<sup>48)</sup>

위 논의를 보면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를 보며 유적지이자 형승지로서 개성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국왕의 심경을 엿볼 수 있어서, 성종대 이래 사대부들의 문화가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즉, 관광지로서 개성이 부상하여 그에 대한 글들이 지어지고 사대부들이 돌러가며 읽고 이것이 관찬서에도 수록된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비록 박연폭포 방문은 그다지 명분이 서지는 않았지만, 망한 전조의 감계로 삼고 창업의 유적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개성이 지니는 유용성도 잘 드러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무렵 국왕의 행차 논의 때부터는 고려 법궁터가 ‘만월대’라고 지칭되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법궁터가 연경궁이라고 인식되고 만월대는 민간의 칭호로 언급되었던 것과는 달리, 연산군대부터는 ‘만월대’라고 지칭되었다.

전교하기를, “장단 석벽 거동 때 개성부에도 가서 문묘에 작헌례를 올리고, 滿月臺에 올라 본 뒤 석벽으로 바로 가서 명승지를 두루 구경하고 대비전을 기다려 還駕하라.” 하였다.<sup>49)</sup>

위 인용문에서 연산군이 직접적으로 고려 법궁터를 만월대라고 지칭한 것처럼 증중대 만월대 무과 시취를 논의할 때에도 연경궁 시취가 아니라 만월대 시취라고 언급되었다.<sup>50)</sup> 이처럼 이 무렵부터는 ‘만월대’가 ‘연경궁’을 압도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607년(선조 40) 尹根壽의 筭子에서는 “고려 때의 만월대 대궐이란 바로 소위 연경궁이란 것인데, 후에 본대궐이라 칭한 것이었습니다”<sup>51)</sup> 라고 하여, 연경궁이나 본대궐이 부차적인 설명으로 격하되고 만월대란 말이 오히려 대표성을 띠는 명칭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15세기 후반 직접 기억이 아닌, 역사 기억으로서 ‘고려’를 학습

48) 『中宗實錄』 권80, 中宗 30년 9월 17일(乙亥).

49) 『燕山君日記』 권63, 燕山君 12년 8월 19일(丙寅).

50) 『中宗實錄』 권77, 中宗 29년 7월 14일(己卯) 등 7월~9월 관련 기사 참조.

51) 『宣祖實錄』 권214, 宣祖 40년 7월 29일(己未).

臣聞 麗朝滿月臺大闕 卽所謂延慶宮 而後來所稱本大闕者也

하면서 고려를 상징하는 개성이라는 장소가 일종의 관광지화하면서 변모된 것이라 생각한다. 본궤터 전체 중에서도 ‘만월대’라고 지칭되던 회경전터는 관광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고, 술자리를 펼치거나 국왕 행행 때 과거나 양로연을 치를 수 있는 편리한 장소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한 언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러한 관광지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꼼꼼하고 건조한 사실보다는 풍문이나 재미있는 속설이 더 유행하고 그것이 더 사실같은 권위를 지니곤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역사 기억 장소로서 개성이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고려의 법궁터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선택된 ‘연경궁’이라는 정식 이름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리던 ‘만월대’라는 이름이 더 대중성을 지니고, 중앙 정치 현장에서도 이 이름이 더 널리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국여지승람』으로 대표되는 관찬 지리지에서는 고려 정궁의 이름이 연경궁이며, 정전이 건덕전이라는 점, 만월대는 정전 앞 계단이라는 서술은 변동된 바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리지의 권위는 권위대로 유지된 것이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 고려 법궁에 대한 고증이 수정되면서 전혀 새로운 의견이 제시된다.

#### 4. 19세기 ‘연경궁 정궁설’의 부정과 그 배경

19세기 고려 법궁과 관련한 고증이 변화하는 상황은 개성 관련 조선 시기 지지, 읍지류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개성부의 읍지는 1648년(인조 26)에 金堉이 『松都誌』〈一叢古 915.12-So58j〉<sup>52)</sup>를 편찬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증보와 보완이 이루어졌는데, 일부는 발문만 전한다. 실물이 전해지는 것으로는 1782년 『松都誌』〈奎 4983〉<sup>53)</sup> 1796년 『松都續誌』<sup>54)</sup> 1830년 간행된 『中京誌』를 들 수 있다.

52) 『松都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一叢古915.12-So58j〉(영인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한국읍지총람(조선시대사찬읍지 2: 경기도 편 2)).

53) 『松都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奎4983〉(영인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한국읍지총람(조선시대사찬읍지 2: 경기도 편 2)).

54) 『松都續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古4790-15〉(영인본 서울 한국인문과학원 1991 한국읍지총람(조선시대사찬읍지 3: 경기도편 3)).

이와 같은 간행 상황과 해당 책에서 고려 궁궐 관련 서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지지·읍지들은 만월대/연경궁 서술 내용에 따라 크게 『중경지』(⑧) 이전과 이후로 대별해볼 수 있다. 김육이 『송도지』를 만들 때 曹臣俊(1573-?)의 『松都雜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편찬한 이래로, 1796년에 편찬된 『송도속지』(⑦)까지는 만월대/연경궁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인습하여 서술하였다.<sup>55)</sup> 그럼 김육의 『송도지』(①)에서 어떻게 서술하였는가? 『송도지』에서는 宮殿條에서 이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고려 법궁에 대해 서술하였다.

延慶宮은 松岳山 아래에 있으니, 前朝의 大內이다. 正殿은 乾德宮이라 하는데, 大觀이라고도 한다. 南門은 光化, 동쪽은 東華, 서쪽은 西華이고, 북쪽은 玄武이다. 仁宗朝에 李資謙에 의해 불에 탔고, 恭愍王 때에 또 홍건적의 난을 겪어서 다시 건설되지 못하였다. 闕庭은 毬庭이라하니, 곧 滿月臺 아래이다.<sup>56)</sup>

이는 앞 장의 <표 1>에서 인용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연경궁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今稱本大闕’이라는 구절만 빼고, 만월대를 구정 북쪽의 높은 축대(현재의 회경전 계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기록이었다. 즉 법궁의 이름은 그대로 연경궁으로, 만월대는 정전 앞 축대(계단)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신 ‘본대궐’이라는 명칭에 대한 설명만 빠진 정도였다.

그러나 『중경지』부터는 만월대/연경궁에 대한 서술이 변화한다. 연경궁 항목에서 여전히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그대로 서술해두기는 하였으나 按說을 붙여 다음과 같이 연경궁의 정체에 대하여 의심하였다.

『고려사』와 『동문선』을 보면 연경궁은 이궁인 듯한데, 原誌에서는 正宮이라 하였고 金寬毅의 『編年通錄』에서도 ‘延慶宮 奉元殿’이라 하였으니 의심스럽다.<sup>57)</sup>

55) 정창순의 『송도지』 <奎 4983>는 앞의 지지의 내용을 인습하는 데 그쳤으며, 김문순의 『송도속지』에서도 만월대 항목에서 原誌를 보라고 하는 데 그치면서 서술에 있어 크게 변화한 것이 없었다.

56) 『松都誌』 <一叢古915.12-So58j>.

延慶宮 在松岳山下 前朝大內也 正殿曰乾德宮 或稱大觀 南門曰光化[廣化] 東曰東華 西曰西華 北曰玄武 仁宗朝爲李資謙所焚 恭愍王時又經紅賊之亂 不復收建 闕庭謂之毬庭 卽滿月臺下

〈표 2〉 개성 관련 지리지 정리

분류	번호	연도	편찬자	제목	비고	궁궐 관련 서술
관찬	①	1648년 (인조 26)	金堉	『송도지』		『동국여지승람』 기록 인습
	②	1669년 (숙종 25)	李墩		이돈의 발문만 전함	
	③	1705년 (숙종 31)	嚴緝		이돈의 초고본 간행, 엄집의 발문만 전함	
	④	1757년 (영조 33)	吳遂采	『송도속지』	김육의 『송도지』에 영조의 행행 사실과 사적 보완 전하지 않음	
	⑤	1782년 (정조 6)	鄭昌順	『송도지』	간행	
	⑥	1783년 (정조 7) /1785년 (정조 9)	徐有防/尹塾	補遺 1책		
	⑦	1796년 (정조 20)	府의 인사들과 유수 金文淳	『松都續志』	원지와 보유를 합침	
	⑧	1824년 (순조 24)/ 1830년 (순조 30)	金履載/徐熹淳	『中京志』	원지와 『송도속지』 합쳐 편찬. 이후 증보 및 1914년 조선 광문회 간행	
사찬	⑨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	韓在濂	『高麗古都徵』	정식 간행은 1850년대 이후로 추정	별궁 편에 연경궁 항목 설정 정전=회경전 『동국여지승람』 기록이 오류라고 밝힘
	⑩	1830년대	林孝憲	『松京廣攷』		‘본궐’ 항목 설정 ‘연경궁’ 항목 별도 설정 『동국여지승람』과 지지 기록 오류라고 밝힘

그러면서 별도로 『회경전』 항목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滿月臺는 會慶殿터이다. … 살펴보건대, 滿月臺와 毬庭은 原誌에서는 延慶宮 아래에 실었는데, 會慶殿 터인지가 분명치 않은 듯하여 이번에는 여기(회경전 항목)로 옮겨 수록하였다.<sup>58)</sup>

이는 결과적으로 연경궁은 이궁인지 법궁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보통 알려진 만월대는 회경전터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는 곧 이전까지 고려 법궁의 정전을 건덕전이라고 본 것과 달리 회경전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부터 달라진 것이기도 하다.

연경궁이 정궁이 아니라 이궁인 듯하다는 본격적인 의심과 새로운 고증은 개성 출신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저술한 책들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韓在濂(1775~1818)의 『高麗古都徵』과 林孝憲(1784~?)의 『松京廣攷』이다. 한재렴은 일찍부터 고체시에 뛰어나 박지원, 정약용, 신위 등과 교류하였다고 하며,<sup>59)</sup> 비슷한 시기를 살아간 임효헌은 자세한 이력은 알려지지 않았다.<sup>60)</sup> 그가 1830년대에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송경광고』이다. 이 책은 전체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송도 읍지를 망라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것으로서 읍지로서는 상당히 방대한 축에 속한다.<sup>61)</sup> 『고려고도징』은 정식 간행은 1850년대 이후였지만<sup>62)</sup> 『송경광고』에서 『고려고도징』을 인용하고 있어 완성 자체는 『고려고도징』

57) 『中京志』 권4, 宮殿附樓院 延慶宮.

據麗史及東文選 則延慶似是離宮 而原誌以爲正宮 金寬毅編年亦以爲延慶宮奉元殿可疑  
김관의 『편년통록』의 연경궁 봉원전이라는 언급은 태조의 탄생지에 관련한 설화에 등장하는 장소이다.

58) 『中京志』 권4, 宮殿附樓院 會慶殿.

滿月臺 會慶殿基 …… 按滿月臺及毬庭 原誌載於延慶宮下 而不若爲會慶殿基之分明 故今移錄于此

59) 韓在濂의 본관은 淸州, 호는 心遠堂이다. 아버지는 韓錫祐이며 『綠波雜記』를 남긴 韓在洛이 그의 동생이다. 저서로는 『心遠堂詩文抄』, 『西原家稿』가 있다(영인본 『고려고도징』 1973 아세아문화사 해제, 『녹과잡기: 개성 한량이 만난 평양 기생 66인의 풍류와 사랑』(한재락 저/이가원·허경진역, 2007 김영사) 참조).

60) 林孝憲은 1784년(정조 8)에 출생하였고, 字 學卿, 본관은 沃野로서 開城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林命建, 외조부는 朴尙恒이다(『國朝文科榜目』).

61)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古4790-14,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 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 도읍지 8-9.

62) 규장각 소장 『高麗古都徵』(奎7168)본 해제 참조.

이 먼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高麗古都徵』을 보면, 아예 연경궁 항목을 별궁 편에 설정하여 연경궁이 별궁임을 분명히 밝혔다.<sup>63)</sup> 또한 법궁의 正殿도 乾德殿에서 會慶殿으로 수정되는데, 『고려고도징』의 회경전 항목에서

고려 때에는 회경전이 정전으로 책례를 받은 곳이다. 여지승람에서 건덕전을 정전으로 본 것은 틀렸다.<sup>64)</sup>

라고 함으로써, 『동국여지승람』의 기사가 잘못되었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송경광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였다. 여기에서는 고려 정궁에 해당하는 항목이 ‘본궐’ 항목으로 설정되고 연경궁을 정궁으로 본 승람과 지지의 기록이 틀렸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毬庭 항목도 본궐 아래에 수록되었다. 한편 연경궁 항목도 별도로 설정하면서 승람과 고려고도징 양자를 다 인용해 놓고 승람의 기사가 틀린 것이 많다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sup>65)</sup>

처음 김육이 편찬하면서 시작된 관찬 지지나 읍지류에서는 일단 기본 관심이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士女들의 절행이나 과거합격자를 기록하는 일, 혹은 국왕의 행행사실이나 행정구역 개편 같은 현재적 관심에 있었다. 즉 그 관심이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 있었다는 것이다.<sup>66)</sup> 더구나 이전에

63) 『高麗古都徵』 권2, 別宮 延慶宮.

저자는 연경궁이 광화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연경궁은 大内の 별궁이지 왕궁의 총칭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案延慶宮當在廣華門內 資謙之變宮闕灰燼 仁宗移御是宮剪除資謙 其後連御是宮 至十六年十月始還新闕 則延慶是大內之別宮 非王宮之總稱也).

64) 『高麗古都徵』 권2, 會慶殿.

案麗時會慶殿爲正殿 受冊禮之所 輿地勝覽 以乾德殿爲正殿 誤矣

65) 『松京廣攷』 제6책, 宮殿 一.

66) 개성 관련 지지의 여러 발문을 살펴보면 지지를 편찬하는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鄭昌順 발문에서는 사녀의 절행과 과거 합격자를 추가로 기록할 것이 많다고 하였으며,(且誌之成已過數十餘年 其間士女節行之懿 衿紳科甲之盛 可記者 非一二數 俱在誌成之後 不入於編錄 此誠斯誌之闕文), 金文淳의 『송도속지』 서문에서는 정조 20년 금천과 장단의 일부를 개성에 이속시켜준 것을 칭송하면서 읍지 제작의 이유로 꼽았고(粵在丙辰 我正宗大王 特軫古都幅員之狹 命割付金川之大小南兩面長湍之松西面一隅 以爲廣土田裕生業之地 實松民萬歲之惠也), 趙敬夏는 1881년 『중경지』 발문에서 정창순과 같이 사녀절행과 과거합격자 기록은 물론 제도의 변천을 기록할 것이 많고 1872년 고종이 개성에 방문한 사실 등을 특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厥後二十七載 衿紳科宦之盛 士女節行之懿 規撫制置之損益 其所可紀



완성된 지지를 함부로 고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sup>67)</sup> 이후의 지지에서도 승람 기록을 인습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비해 전대 지지에 대한 부담이 없는 19세기 편찬된 사찬 지지에서는 승람과 기존 지지가 잘못되었다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연경궁 정궁설과 건덕전 정전설을 부정하였다.

이는 관찬 지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관찬지지인 『중경지』 이후로는 조심스러운 태도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변화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경지』에서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제시하고 안설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경궁 정궁설을 기록하면서도 의심을 표시하였고, 이전에 연경궁 항목 아래에 서술되어 있었던 만월대와 구정을 회경전 항목을 신설하고 거기에 기술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찬이건 관찬이건 19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이전 승람의 내용이 수정되고 새로운 고증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19세기 초반을 계기로 『세종실록』 지리지 이래 설정되었던 연경궁 정궁설과 건덕전 정전설 같은 기존의 설이 부정되었고, 만월대 역시 회경전터를 가리키는 원래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그에 비해 ‘본궐’이라는 『고려사』 속의 어휘가 다시금 발굴되었다.

그렇다면 19세기 초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서경의 『선화봉사고려도경(이하 고려도경)』의 전면적인 활용 때문이었다. 송대 간행된 『고려도경』은 판본이 그리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으나 고려판 『고려도경』도 있었다 전해지고, 『세종실록』 지리지 및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미 이 책이 활용되었다.<sup>6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실록』 지리지는 물론, 『동국여지승람』에서도 『고려도경』은 그다지 풍부하게 활용된 편은 아니었다.<sup>69)</sup> 이는 일반 사

者 非一二數 歲壬申鑾輿凝臨于茲 祇謁兩陵 奉審二宮 臨臺而試儒武 御樓而問耆老 興補撫恤之德澤 鼓舞振作 山川生輝 是乃英廟朝後 初有之盛舉也 善述貽謨 誕垂休光 其可不 大書特書乎).

고려 궁궐에 관련된 기록은 김육의 『송도지』에서만 궁전조에 실렸을 뿐, 이후에는 고적조로 밀렸다.

67) <표 2> ② 李塾 발문 “盡錄前誌者 以先輩遺編 不敢忘有加減也”

68) 『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舊都開城留後司.

鎭山曰松嶽 一名崧嶽 宋徐兢奉使圖經云 京城之鎭曰崧山

69) 『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는 『고려도경』은 물론 『고려사』, 『宋史』, 『大明一統誌』까지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도경』의 내용은 풍속을 설명하는 데에만 인용되는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다.

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조선 중기까지도 사대부들이 『고려도경』을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로는 여러 문인의 문집에서 『고려도경』의 책명과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발견된다. 18, 19세기를 살았던 姜必孝(1764~1848), 申緯(1769~1845)의 문집에는 『고려도경』을 읽은 후에 쓴 독후감이 있으며, 柳詠(1779~1821)이나 洪奭周(1774~1842)의 문집에는 『고려도경』에 대한 서술이 있다.<sup>70)</sup> 또한 韓致瀛(1765~1814)의 역사서인 『海東繹史』에서는 『고려도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고, 丁若鏞(1762~1836)은 여러 글에서 『고려도경』을 인용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고증하는 등 역사적인 사료로서도 『고려도경』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71)</sup>

이처럼 『고려도경』이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淸에서 이 책이 간행되고 이것이 조선에서 유통되었기 때문이었다. 1793년(건륭 58, 정조 17)에는 鮑廷博이 知不足齋叢書로 이 책을 간행하였는데, 현재 여러 기관에 지부족재본을 바탕으로 필사한 필사본이 전해진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이 널리 유통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72)</sup>

또한 이 무렵에는 『고려도경』의 판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sup>73)</sup> 李德懋(1741~1793)는 『고려도경』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潘庭均에게 청에서 간행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다.<sup>74)</sup> 『고려도경』을 찾는다고 소문난 柳得恭(1749~1807)

70) 18세기 문인들이 『고려도경』을 읽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장남원, 2010 『필사본 『고려도경』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17, 212-213쪽 참조.

71) 『興猶堂全書』 詩文集 권12, 押海政丞墓辨; 雜纂集 권24, 雅言覺非 檜; 地理集 권8, 大東水經 4 淇水3.

72) 민족문화추진회, 고전국역총서 『고려도경』 해제 참조.

고려대학교와 규장각에는 지부족재본을 바탕으로 필사한 필사본이 전해지며, 지부족재본 『고려도경』도 전해진다(장남원, 앞의 논문, 204-208면).

73) 『고려도경』은 1123년(인종 1) 고려를 방문한 서긍이 돌아와서 약 1년 후인 1124년에 완성한 책이다. 그러나 1126년 이른바 靖康의 난으로 원본 및 부분이 소실되어 책의 그림 부분이 망실되었다. 1167년(의종 21)에 이른바 건도본 『고려도경』이 판각되었으나 오랫동안 세상에 유통되지 않아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건도본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명 중엽까지 다시 판각되지 않았고 명말 海鹽 사람 鄭休中이 鈔本에 의거해서 중간을 하였다. 四庫全書에서도 초본에 의거해서 저록하였다. 한편 1793년(건륭 58, 정조 17) 鮑廷博이 知不足齋叢書로 이 책을 간행하였는데, 이것이 널리 유통되었다. 고려본 『고려도경』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전하는 것은 없다.

74) 『靑莊館全書』 권19, 雅亭遺稿 11 書 五 潘秋申 庭筠.  
宋徐兢高麗圖經 有刊行否 先生亦見之否 朝鮮則無之耳

에게는 강남 蘇州의 장서가가 자신에게 송판본이 있다며 알려오기도 하였다.<sup>75)</sup> 이런 분위기는 당대인들이 책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넘어 판본의 문제까지 고심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19세기 초반 판찬지와 사찬지 제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연경궁이 정궁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은 『고려사』와 『동문선』 등만 찬찬히 살펴보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자체가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고 지방의 일반 사류가 널리 보기도 힘들었을 뿐더러<sup>76)</sup> 19세기 이전까지 지지의 편찬자들이 고려의 사적과 유적을 면밀히 고찰하고자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경궁 정궁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고증학적 분위기 속에서 후대의 사료보다 당대 사료를 더 높이 평가하는 의식이 자리잡고, 『고려도경』을 얻는 것이 편리해진 속에서 일단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의심할 단서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고려도경』에는 연경궁에 관한 항목이나 정궁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전을 회경전으로 설정하고, 그 앞에 있었던 신봉문과 구정을 설정하고 있어서, 이를 보면 일단 건덕전을 정전으로 설정한 승람 기록을 의심하게 될 단서를 얻게 된다.<sup>77)</sup> 이에 따라 『고려사』와 『동문선』의 여러 글들을 비교해보면 연경궁이 정궁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중경지』 범례에서는 『고려사』, 『국조보감』, 『송사』, 『명사』, 『여지승람』, 『문

위의 편지 내용을 보면, 이덕무는 『고려도경』이라는 책 자체를 넘어서 간행사항(판본)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 ‘조선에서는 없다’는 말은 ‘조선에 이 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는 간행한 적이 없다’는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도경』에 대해 서술한 다른 글에서 그는 『고려도경』이 『고금도서집성』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반정균이 집에 초본도경5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하었다고 기록하였다(『靑莊館全書』 권58, 盡葉記 5 高麗圖經).

주지하다시피 『고금도서집성』은 1777년(정조 1)에 조선에 수입되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덕무는 이미 『고려도경』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판본 혹은 송판본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75) 『燕臺再遊錄』

黃丕烈號蕘圃 江南吳縣人 收藏甚富 … 蕘圃曰 前日 這裏主人說起 先生要覓高麗圖經 舍下却有影宋本子 較知不足齋所刻却好 惜未帶來 倘日後可有相會日子 能帶來一觀更妙 答河清難俟 如獲一觀 更快

76) <표 2>의 ② 李塾 발문 “首載勝覽者以委巷後生 未易考見本書也”

77) 이외에도 승람에서는 광화문을 궁의 정남문으로 보았으나, 『고려도경』에서는 왕부의 동문으로 서술하고 있다.

헌비고』 등과 함께 서공의 『고려도경』을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려도경』이나 『고려사』, 『송사』 등은 이미 『승람』 편찬 단계에서도 참고하였던 만큼 굳이 새로운 참고문헌목록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책들이다. 그러나 참고목록이 범례의 한 조목을 차지하고 있고 『고려도경』 등이 굳이 다시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 시대의 지지에 비해 이 자료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참고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관찬의 한계상 이전 지지를 드러내놓고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실어놓고 안설로써 이전 지지가 틀린 것 같다고 완곡하게 밝힌 것이다.

그에 비해 사찬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고려도경을 인용하며 지지와 승람이 틀렸다고 과감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고려고도징』의 경우 저자 한재림이 정약용과 교류했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정약용이 『고려도경』을 여러가지 고증에 활용하였던 것과 많은 유사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송경광고』의 경우는 아예 ‘문궐’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문궐조는 이전 지지나 이후 지지에서도 설정된 적이 없는 새로운 항목으로서 『고려도경』에만 있는 체제였다. 이러한 체제로 저자는 『고려도경』과 『고려사』를 참고하여 서술하였다.<sup>78)</sup> 또한 『고려도경』에 입각한 고려궁궐도까지 삼입함으로써 『고려도경』의 질은 영향을 보여준다.<sup>79)</sup>

이상을 통해 19세기 초반 『고려도경』 독해의 확산을 계기로 개경이나 고려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치밀해지면서 그 이전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연경궁 정궁설과 건덕전 정전설이 철저히 부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있다. 『고려도경』이라는 자료를 검토하였다는 점만으로, 18~19세기의 학자들이 순식간에 그 이전까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고려도경』은 고려 당대 외국인의 시선으로 쓰여진 사료로서 상당히 가치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매우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시기 학자들은 『고려도경』의 기록을 더 신뢰하였고, 승람과 『고려도경』의 기록이

78) 배우성은 편자가 개성부 성곽인 황성, 궁성, 외성의 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서공의 『고려도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독자적인 편집을 시도한 것 같다고 보았다(규장각자료총서 지리지편, 『경기도읍지』 8 해설 15쪽 참조).

『고려도경』의 문궐편은 외성의 문이름도 많이 안 나와 내용이 소략한 데 비해 『송경광고』는 고려사를 많이 인용하여 많은 문에 대해서 좀더 풍부하게 기술하였다.

79) 저자는 『고려사』 예지와 『고려도경』을 참조하였다고 하였으나, 기본 구조는 『고려도경』의 설명과 거의 동일하고 그림 뒤의 해설에서도 『고려도경』의 해당 부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상충할 경우 후자를 신빙하였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18, 19세기의 학자들이 역사적 고증이나 서술에 있어서 ‘당대 사료’의 중요성, 즉 사료의 시간성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한층 치밀한 방법론이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타자의 시선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고려도경』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중국인이 쓴 조선 관련 기록들을 찾으려는 노력이 많았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타자의 시선으로 자아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부분은 이 시기 역사 서술 방식과 역사의식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시기 고려 법궁의 명칭에 대한 고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본궐, 대내, 금중, 대궐 등 다양한 일반 명칭으로 『고려사』에 등장하는 고려 법궁은, 조선 초 『세종실록』 지리지 이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거쳐 그 이름이 ‘연경궁’이며 정전은 건덕궁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 외에 지역민들이 ‘본대궐’이라고 부른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만월대’라는 명칭은 고려 말 이래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15세기 후반까지는 개성 안에서만 주로 사용된 명칭이었는데, 『동국여지승람』에서 처음으로 항목이 추가되었고 신증이 되면서 여러 시문이 첨가되었다.

15세기 후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로 세대 교체가 되고 『고려사』가 반포되며 고려를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닌, 학습한 세대가 성장하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이를 바탕으로 고려에 대한 역사지식이 확대되면서 그 사적지이자 형승지로서 개경을 관광하는 것이 유행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채수, 유호인 등 젊은 문신들이 개성을 여행한 기행문들을 남겼는데, 이때 지역민이 부르는 칭호인 ‘만월대’ 등이 처음으로 이들의 기록에 서술되었다. 마지막으로 좀더 직접적인 영향관계로서, 개성을 여행한 이들 대부분이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만월대’에 관한 정보들이 관찬 지리지에 본격적으로 수록되었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넓직한 만월대 터는 여행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상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초기에 정전 앞 계단으로만 언급되었던 만월대는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오히려 법궁터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확대,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궁을 연경궁으로, 정전을 건덕궁으로 보고 정전 앞 계단을 만월대로 지칭하는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조선 후기에도 답습되어서, 개성 관련 地誌 및 읍지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지나 읍지 편찬자가 역사 도시로서 개성에 관심을 두고 편찬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위시한 전대의 지지를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찬 읍지를 필두로 이러한 서술 방식에 대전환을 맞게 되었다. 연경궁 정궁설이 부정되고, 정전은 건덕전이 아니라 회경전으로 수정되었고, 본궐이라는 명칭이 대두되었다. 이는 이 무렵 『고려도경』에 대하여 관심이 제고된 것과 관계가 깊었다. 즉 고증학적 분위기 속에서 당대 사료의 중요성이 제시되며 이에 의거하여 전면적으로 재고증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조선 초에는 고려를 직접 경험한 세대의 ‘살아있는 기억’으로서 구성되었던 개성은 조선의 창업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에만 관심이 기울여졌다. 그러나 15세기 후반 이후 고려에 대한 ‘학습된 기억’이 대두하여 그 유적지로서 개성이 주목받으면서 역사의 감계이자 형승지로서 사대부들의 개성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여행을 통해 수집한 지역 정보들은 다시 『동국여지승람』 같은 관찬 지리지를 편찬하는 데에 반영이 되면서 대중적으로 유행하였고 후대의 지리지나 읍지에까지 가장 권위있는 정보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고증학적 분위기에서 개성의 고적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도경』 같은 당대 사료가 더 비중있게 취급되며 새로이 고증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시기 고려 법궁에 대한 고증이 변화해온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재 만월대라고 부르는 고려 법궁터 일대에 대한 지식의 내용을 점검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려에 대한 지식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선 초에 일단 성립된 후에도 변화를 거쳐 왔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 15세기 후반/19세기 초반이라는 중요한 결절점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도구적인 측면에서 조선 시기의 고려 관련 사료들을 볼 때, 좀더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또한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시기 지역의 정보가 어떻게 중앙에 전해졌으며, 이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여 역사를 재구성하였는지를 좀더 구체적인 정보 단위까지도 연구

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 기억의 재구성보다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투고일(2011. 10. 30), 심사일(2011. 11.26), 게재확정일(2011. 11. 30)

## 참고문헌

<1차 사료 및 웹사이트>

『高麗史』

『高麗史節要』

『宣和奉使高麗圖經』

『世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中宗實錄』; 『宣祖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松都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一叢古915.12-So58j>

『松都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奎4983>

『松都續誌』<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古4790-15>

『松京廣攷』

『中京志』

『高麗古都徵』

『東國李相國全集』

『秋江先生文集』

『沙川伯南先生遺集』

『佔畢齋文集』

『續東文選』

『梅溪集』

『四佳集』

『與猶堂全書』

『靑莊館全書』



『燕臺再遊錄』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저서 및 논문(저자명 가나다순)〉

김문식, 2010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신은제, 2007 『『고려사』 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 23호.

장남원, 2010 『필사본 『고려도경』의 유포와 의의』 『한국문화연구』 17.

장지연, 2000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장지연, 2006 『고려후기 개경 궁궐 건설 및 운용방식』 『역사와현실』 60.

전룡철, 2002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홍순민, 1996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Abstract**

## Changes in the Joseon people's Knowledge of the Goryeo Dynasty's Main Palace (法宮)

Jang Jiyeon

Examined in this article, is no other than the official titles the Joseon people used to call the Goryeo dynasty's Main palace. Such titles are examined here to determine how the Joseon people's knowledge of things related to the Goryeo period changed over time.

The name of the Goryeo dynasty's Main palace was written by the Joseon people to have been 'Yeon'gyeong-gung' till 15th century, after the late 15th century was added 'Man'weol-dae as a high embankment in front of the Main structure called Geon'deok-jeon, which was popularly used as a name of main palace. These tend to change significantly in the early 19th century,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memory of Goryeo Dynasty.

The early Joseon dynasty, Gaesung was considered important just as much as related to a founder of the Joseon, based on 'living memory.' However, since the late 15th century, a 'learned memory' of Goryeo was emerged, and Gaeseong became a historical places, which made nobilities trip to Gaeseong. The local informations gathered by them was included to 'Dong'guk'yeo'ji'seung'ram', which has been the most authoritative knowledge till the early 19th century. In the early 19th century, Joseon people ascertain in detail historical evidence, esp. with 'Goryeo Dogyeong', and they changed the theories on the name of main palace.

All these changes in the people's knowledge of Goryeo shows us that their understanding of all things Goryeo was far from either concrete or fixed or final. It in fact changed and even evolved as time passed by. Especially the late 15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is very important node for this knowledge's change.

**Keywords:** Main palace, Yeon'gyeong-gung palace, Man'weol-dae palace, reconstruction of memories